

기술혁신 통해 세계시장 개척

이노비즈 선정으로 기술력 인정

기업이 성장하려면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게 기술 개발이다. 고유기술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기술을 밑천으로 혁신형 기업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자동성형진공포장기 전문기업인 (주)코마스(대표이사 최포인)는 1984년 국도양행으로 출발, 2003년 코마스로 법인 설립하여 외국산기계의 국산화와 포장기계의 자동화로 25년간 자동성형진공포장기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과 품질을 갖춘 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기술적 입지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 주도형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원가절감을 통



▲ (주)코마스의 진공포장기 KR-500/300

KOMAS

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코마스는 대내외적인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먼저 진공포장을 위한 흡배기 시스템과 필름롤장착장치로 특허 2건을 취득 하였으며, 지난 8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이노비즈(INNO-BIZ)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조어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줄여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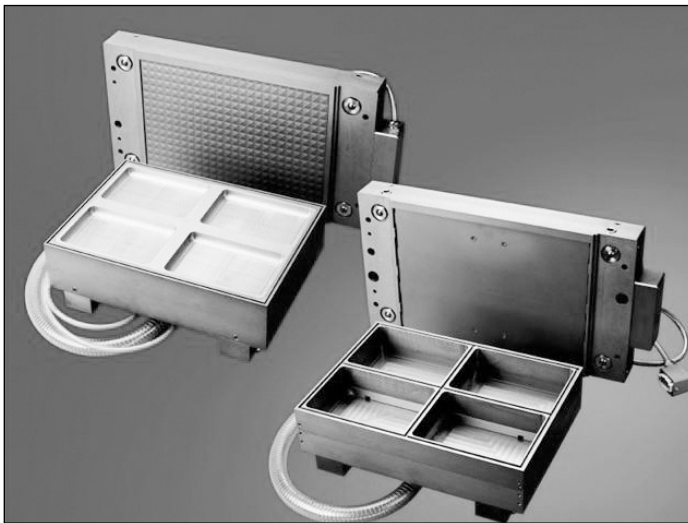
이는 곧 기술, 경영, 가치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기술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을 인정받은 코마스는 앞으로 세계무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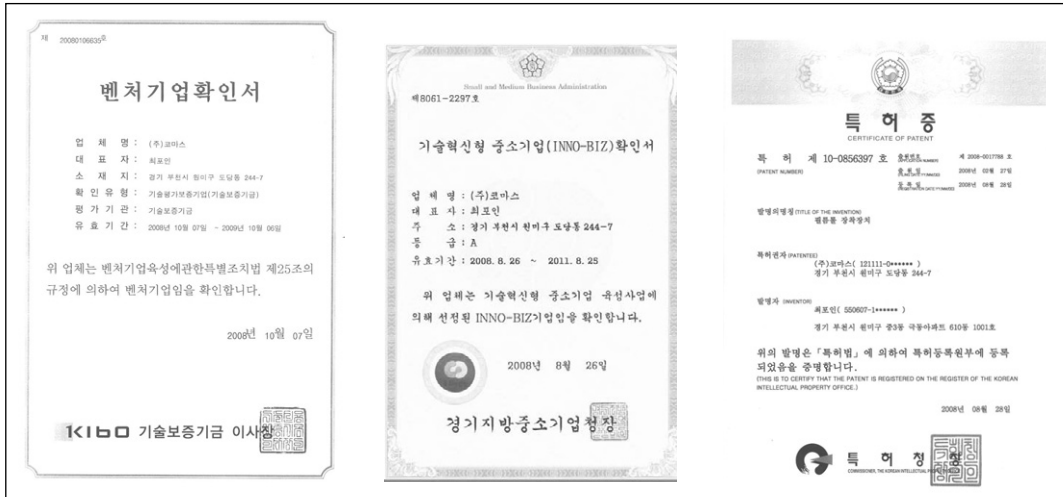
향한 디딤돌인 전시회를 통해 제품 및 상호 홍보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코마스는 진공포장기, 라벨러, 방습제절단투입기, 포밍/실링 다이, 더말프린터, 날인기, 잉크젯프린터를 생산하고 있다.

진공 포장기 제품인 KR-500/300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수려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비청소가 용이하다. 또한 고장율이 적고 사용이 편리한 유럽산 진공펌프를 사용하는 이 제품은 소세지, 절임류, 닭고기, 피클, 제과제빵, 인스턴트 식품, 채소류, 과일류, 육류, 생선류, 양계류, 각종 의류 및 액세서리, 각종 화장품, 일회용 주사바늘, 헌혈팩, 전기, 전자, 기계부품, 의료용품 등 다



▲ (주)코마스의 포밍/실링 다이



▲ (주)코마스의 벤처기업, 이노비즈, 특허증 확인서

양한 생산품 포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변질되기 쉬운 다양한 종류의 생산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스를 주입하고, 진공을 유지하도록 한 포장기가 가능하다.

코마스는 최근 KR-500/300의 크기보다 작으나 성능은 우수한 소형 진공 포장기 KR-340을 개발했다.

소형 진공 포장기 KR-340은 전장 3.8m, 폭 900mm이며 높이는 900mm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

KR-340의 생산 스피드는 7cycle이다. 기계에 사용된 부품의 75%가 유럽 및 일본산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진공펌프의 경우 독일제 진공 펌프(2500 L/M)를 사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KR-340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단가를 낮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동 진공 포장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소형 진공 포장기 KR-340의 개발로 코마스는 소형에서 대형 제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동 진공 포장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포인 사장은 회사를 운영 할때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코마스는 기술경영을 통해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 국내 시장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주)코마스.

벤처기업의 생명은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이 기술개발과 연계되었을 때, 폭발력은 커질 것이다.

품질 구조 개선 및 연구개발을 통해 활용성, 실용성, 편리성을 높여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 있는 (주)코마스의 향후 도전이 더욱 기대된다. 

이한얼 기자